

경희대학교 2009학년도 모의논술고사 결과 분석

1. 모의논술고사 실시 배경과 목적

- 1) 2009학년도 수시모집시 교과우수자 I 전형에 논술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논술우선선발제도를 도입함
- 2) 2008학년도에 비해 논술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출제분량, 시험시간, 작성분량 등이 변화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예시하여 수험생들이 논술고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함
- 3) 모의논술고사 문제 개발을 통해 수험생들의 학업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하고자 함
- 4) 모의논술고사 실시 결과 분석을 통해 논술고사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나아가 논술고사 관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모의논술고사의 평가기준

- 1) 이해 · 분석능력(30%)
- 2) 논리적 구성능력(20%)
- 3) 창의적 사고력(30%)
- 4) 표현력(20%)

※ 위 평가기준은 각 논제의 내용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짐

3. 채점과정

- 1) 2009학년도 논술고사의 유형과 방향을 연구하는 논술출제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채점기준과 원칙을 정함
- 2)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논술출제운영위원 및 채점위원들에 의해 채점이 실시됨

4. 점수분석

1) 응시자 현황

	응시자		결시자		합계	
	명	(%)	명	(%)	명	%
전체	1,551	(78.9)	416	(21.1)	1,967	(100.0)
인문	989	(83.6)	194	(16.4)	1183	(100.0)
자연	562	(71.7)	222	(28.3)	784	(100.0)

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의논술고사의 응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나. 한정된 인원에게 응시기회를 준 것이므로 지원자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요구됨

2) 계열별 · 논제별 점수현황

가. 인문계 평균점수는 65.51점, 자연계 평균점수는 71.31점으로 인문계가 자연계에 비해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됨

나. 인문계의 경우 상위 25%까지의 점수는 72.80점, 50%는 62.50점, 75%는 60.75점이고, 논술 우선선발 비율인 30%까지의 점수는 67.30점임

다. 자연계의 경우 상위 25%까지의 점수는 81.00점, 50%는 65.84점, 75%는 64.43점이고, 논술 우선선발 비율인 30%까지의 점수는 75.75점임

라. 인문계 논술 문제 중 논제 I-1의 평균 점수(15.93점)가 가장 높고, 논제Ⅱ-3의 평균점수(2.93점)가 가장 낮음

[난이도: 쉬움 어려움]

I -1 < I -3 < Ⅱ-2 < Ⅱ-1 < I -2 < Ⅱ-3

마. 자연계 논술 문제 중 논제 I-1의 평균 점수(15.51점)가 가장 높고, 논제Ⅱ-2의 평균점수(7.68점)가 가장 낮음

[난이도: 쉬움 어려움]

I -1 < I -3 < Ⅱ-1 < Ⅱ-3 < I -2 < Ⅱ-2

바. 0점자 수

① 인문계의 경우 논제Ⅱ-3의 0점자 수가 688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논제 I-1은 0명(0.0%)로 가장 적었음

② 자연계의 경우 논제Ⅱ-3의 0점자 수가 230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논제 I-1은 4명(0.7%)으로 가장 적었음

사. 고득점자(91~100점) 수

① 인문계의 경우 논제 I-1의 고득점자(91~100점)가 26명(2.6%)으로 가장 많았고, 논제Ⅱ-3은 2명(0.2%)으로 가장 적었음

② 자연계의 경우 논제Ⅱ-1의 고득점자(91~100점)가 446명(79.4%)으로 가장 많

있고, 논제Ⅱ-2은 2명(0.4%)으로 가장 적었음

<논제별 점수 및 해당 백분위 점수>

계열	논제	N	배점	점수				해당 백분위 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5%	30%	50%	75%
인문 계열	I - 1	989	20	4	19.4	15.93	1.51	17.00	16.00	15.00	15.00
	I - 2	989	10	0	9.5	7.69	1.05	8.20	8.00	7.50	7.00
	I - 3	989	20	0	19.0	15.11	2.95	16.40	16.00	15.00	14.40
	Ⅱ- 1	989	15	0	14.25	11.13	2.41	12.15	11.70	10.95	10.50
	Ⅱ- 2	989	20	0	19	12.71	5.82	16.20	15.00	13.00	12.00
	Ⅱ- 3	989	15	0	14.55	2.93	4.58	9.00	0.00	0.00	0.00
	총점	989	100	14	90.25	65.51	11.85	72.80	67.30	62.50	60.75
자연 계열	I - 1	562	20	0	20.0	15.51	2.00	16.00	16.00	14.40	14.00
	I - 2	562	15	0	10.0	8.43	2.87	10.00	10.00	8.70	8.00
	I - 3	562	15	0	19.4	14.64	3.84	16.60	15.40	14.00	14.00
	Ⅱ- 1	562	18	0	15.0	13.95	2.78	15.00	15.00	15.00	14.40
	Ⅱ- 2	562	18	0	18.6	7.68	6.48	13.00	12.00	0.00	0.00
	Ⅱ- 3	562	14	0	14.85	11.09	2.96	12.75	11.70	10.50	10.50
	총점	562	100	13	91.7	71.31	12.82	81.00	75.75	65.84	64.43

<계열별 등급 현황>

등급그룹	논제	인문계				자연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A	I - 1	17.17	1.06	19.2	14.2	17.63	1.42	20	14
	I - 2	8.31	0.52	9.3	7	9.82	0.57	10	6
	I - 3	16.72	1.03	19	12	17.20	1.09	19.4	14
	Ⅱ- 1	12.46	0.79	13.95	9	14.84	0.48	15	12.6
	Ⅱ- 2	17.01	1.09	19	13.4	14.12	1.82	18.6	12
	Ⅱ- 3	10.78	1.45	14.55	9	12.62	1.03	14.7	10.5
	평균	82.45	2.55	90.25	79.15	86.22	2.01	91.7	83.85
B	I - 1	16.31	1.30	18.8	12	15.94	1.34	20	12.4
	I - 2	7.88	0.72	9.5	6	9.75	0.65	10	7
	I - 3	15.96	1.23	18.8	12	16.00	1.18	19	13
	Ⅱ- 1	11.87	0.86	14.25	9	14.88	0.47	15	11.25
	Ⅱ- 2	15.84	1.51	18.8	12	12.96	1.23	18.6	12
	Ⅱ- 3	7.18	4.25	12.75	0	12.35	1.16	14.55	9
	평균	75.04	2.40	79.05	71.5	81.89	1.04	83.8	80.25
C	I - 1	16.02	1.23	19	12.6	15.33	1.27	20	12.4
	I - 2	7.80	0.62	9.2	6	9.10	1.55	10	0
	I - 3	15.68	1.21	18.4	12	15.34	1.45	19.2	12
	Ⅱ- 1	11.68	0.93	14.25	6.75	14.31	1.29	15	9

	Ⅱ- 2	15.01	2.05	18	0	8.76	5.88	16.8	0
	Ⅱ- 3	0.98	2.81	12	0	11.41	1.87	14.85	0
	평균	67.15	2.31	71.4	62.55	74.25	4.64	80.2	65.9
D	I - 1	15.35	1.63	19.4	12	15.10	1.99	20	0
	I - 2	7.42	1.23	9.3	0	6.72	3.65	10	0
	I - 3	14.61	2.22	18.8	0	13.85	3.84	18.8	0
	Ⅱ- 1	10.80	1.54	13.5	0	13.91	1.76	15	9
	Ⅱ- 2	8.71	6.20	16	0	0.94	3.42	17	0
	Ⅱ- 3	0.14	1.10	9	0	10.70	2.67	14.25	0
	평균	57.04	4.11	62.5	49.15	61.22	3.30	65.85	54.8
E	I - 1	14.76	1.76	18.2	4	14.09	3.60	18.4	0
	I - 2	6.84	1.91	9.4	0	5.19	4.62	10	0
	I - 3	10.67	6.37	18	0	8.29	7.19	17	0
	Ⅱ- 1	6.85	4.95	13.5	0	9.90	6.65	15	0
	Ⅱ- 2	1.31	3.90	16.6	0	0.00	0.00	0	0
	Ⅱ- 3	0.00	0.00	0	0	6.63	5.41	13.5	0
	평균	40.42	7.98	49	14	44.10	9.72	54.75	13

<논제간 상관 관계>

계열	논제	I - 1	I - 2	I - 3	Ⅱ- 1	Ⅱ- 2	Ⅱ- 3	총점
인문	I - 1	-						
	I - 2	.435**	-					
	I - 3	.391**	.461**	-				
	Ⅱ- 1	.171**	.222**	.252**	-			
	Ⅱ- 2	.141**	.130**	.266**	.520**	-		
	Ⅱ- 3	.098**	.062	.131**	.188**	.316**	-	
	총점	.402**	.432**	.555**	.642**	.775**	.668**	-
자연	I - 1	-						
	I - 2	.079	-					
	I - 3	.144**	.109**	-				
	Ⅱ- 1	.017	.422**	.109**	-			
	Ⅱ- 2	.158**	.350**	.266**	.241**	-		
	Ⅱ- 3	.176**	.244**	.199**	.340**	.230**	-	
	총점	.303**	.703**	.485**	.600**	.736**	.583**	-

** p< .01

5.계열별 채점평

1) 인문계

이번 인문계 모의논술은 <논술 I>과 <논술 Ⅱ>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총 6개의

논제가 출제되었다. 출제의도에 따를 때 <논술 I>은 지문에 대한 기본적 이해능력을, <논술 II>는 심화된 이해를 토대로 한 응용력과 추리력, 수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곧 <논술 II>가 <논술 I>보다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었다. 채점결과 이러한 출제 의도는 이번 논술고사에서 적절히 반영 되었다고 본다. 지원자들이 평균적으로 <논술 II>에 비해 <논술 I>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술 II>는 전체적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실하게 답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논제 3의 경우 90%의 학생이 제대로 풀지를 못했다는 점은 재고해야 할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논술 I>의 경우 논제 1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논제와 지문을 이해하고 예시답안에 근접해 제대로 논술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그만큼 논제와 지문이 평이하고 익숙한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참고자료인 제시문 <가>가 고교 교과서 지문이어서 학생들이 친숙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논제 2와 논제 3은 논제 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쓴 답안이 적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는, 논제 2, 논제 3이 요구하는 바가 각각 300자, 400자 이내로 간단히 논술하라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단답형 서술식 논술문제에 익숙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그 핵심적인 사항만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독창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한된 지면을 지나치게 의식해 안전위주로 정형화된 일반적인 답안만을 쓰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출제자의 의도와는 달리 교과서적인 답안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배출되었다.

둘째는, 논제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고 너무 피상적이고 안이하게 논제에 답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가령, 논제 2는 제시문에 나타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인데,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그 원인은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반대로 문제점은 피상적으로 언급하고 원인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서술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이 논제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 있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인데, 마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답안이 많았다.

이러한 논제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특히 논제 3에서 두드러진다. 논제 3은, 두 제시문 <다>, <라>에 나타난 공통된 문제의식을 일단 서술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또 다른 제시문인 <마>를 통해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제시문 <다>, <라>의 공통점을 제대로 기술한 답안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문제의 극복을 위한 실마리가 담겨있는 마지막 제시문 <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논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시문 <마>와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 역시 간과한 결과로 판단된다. 논제만 제대로 숙

지하고 있었다면 <마> 제시문과 다른 제시문들과의 연관성에 충분히 주목했을 것이고 <마> 제시문의 핵심적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술 II> 부분은 <논술 I>과 마찬가지로 세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세 문제 모두 난이도가 다소 높았다하더라도 백지답안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논제 1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맞게 식량위기의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잘 기술했다. 그러나 예시답안에서 제시한 원인 세 가지를 모두 정확히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제시문 내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볍게 이 원인문제를 답하려는 학생이 많았다. 가령, '자국이기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국이기주의'는 제시문에서 암시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는데 이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는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읽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식량위기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너무나 쉽게, 기계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할 충분한 근거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독창적이고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사고해 논제에 답할 필요가 있다.

논제 2는 의외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논제를 이해하고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양고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논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과 식량위기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논지를 전개해야 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식량위기의 대안이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태도가 환경,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서술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과 같은 동양적 사고로 과연 광범위한 전 세계적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회의적인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에도 이런 방향의 답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양적 사고가 식량위기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가능한가를 논술하라'는 논제의 내용을 지나치게 강하게 해석해 마치 동양적 사고가 식량위기의 유일한 대안이자 해결책인 것으로 오인해 생겨난 결과이다.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여전히 논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독창적 사고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

논제 3은 이번 모의논술 문제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문제이다. 정답률도 10%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예 문제를 풀 생각도 안한 백지답안이 대다수였다. 우선 문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또한 가정에서 주어진 공식 등이 고교수준의 학생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처음부터 꺾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 고교수준의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전혀 풀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제 3이 추론하라는 상황은 그 내용상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처럼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인문계 학생들의 수식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감, 추상적이고 고차적, 논리적 사고를 회피하려는 경향 등에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리논술로서 논제 3을 출제한 의도는 수학적 지식보다는 추리력, 분석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데 있지만 학생들이 이것을 단순히 복잡한 수학문제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논제 3은 설령 문제를 푸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에 풀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어서 향후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2) 자연계

2009학년도 수시 입시 준비를 위한 이번 제 1차 자연계 모의논술고사는 논술I과 논술II로 나뉘어 각각 세 개의 논제씩 총 여섯 개의 논제로 출제되었다. 주어진 제시문과 논제들은 주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이는 수험생들의 논리적 추론력과 수리적 해결 능력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여러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술 I은 서술형식의 <논제 I-1>과 <논제 I-3>, 수리적 계산이 필요한 <논제 I-2>로 구성되었다. <논제 I-1>은 호수의 녹조현상을 설명하고 먹이사슬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녹조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는 것이고, <논제 I-3>은 바이오 기술 발전과 관련된 제시문을 바탕으로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및 서로 얽혀 있는 식량, 에너지,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논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제 I-2>는 주어진 수식으로부터 동물성플랑크톤이 일정한 개체수에 이르는 시간을 유도하는 논제였다. 채점을 해 본 결과 <논제 I-1>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제시문에 먹이사슬이 주어져 있고, 논제가 먹이사슬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결방안을 묻는 것이었는데도 생활용수와 공장폐수를 줄이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논제의도와는 거리 있는 답안들도 꽤 있었다. <논제 I-3>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대부분 서술하였으나 식량과 에너지,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데는 답이 나뉘었다. 특히 유전자 조작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답안들이 많았다. 이는 수험생들이 논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논제에 상관

없이 사전에 연습한 정형화된 답안을 제시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논제에 따라 꼭 언급해야 할 핵심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유기적으로 엮어 통합적으로 논술할 수 있는 능력과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좀 더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논제 I-2>는 주어진 수식으로부터 답을 유도하는 수험생들의 계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제였는데 수험생 수준에 비추어 비교적 쉬운 문제였기에 대부분 바른 답을 제시하였다. 다만, 최종적인 답은 올바르게 제시하였지만 풀이과정을 생략하였거나 간단하게 기술한 일부 답안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최종 적인 답은 물론 그 답을 얻기 위한 풀이과정이 논리적으로 올바른지도 평가하기 때문에 풀이과정의 제시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논술 II는 서술형식의 <논제 II-3>과 수리적 계산이 필요한 <논제 II-1> 그리고 <논제 II-2>로 구성되었다. <논제 II-1>은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미분과 관련시켜 묻는 논제였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올바른 답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제의 답안도 <논제 I-2>와 같이 최종 적인 답은 올바르게 제시하였지만 풀이과정을 생략하였거나 간단하게 기술한 답안들이 일부 있었다. 특히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인 $\frac{1}{2} \times \text{질량} \times (\text{속도의 제곱})$ 을 생략한 채 최종 답만을 제시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논제에서는 그 답을 얻기 위한 풀이과정에 논리적 오류 및 비약이 없는지도 평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풀이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대 발전 출력을 구하는 <논제 II-2>에 대해서는 수험생 대부분이 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기 위한 도입단계조차 제시하지 못했으며 설사 도입했더라도 중간과정에서 필요한 적분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논제가 수험생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것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아직 자연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학(미적분학) 및 물리 II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제 II-3>은 세포가 생명활동에 ATP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우의 장점을 발전소의 고전압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20V로 변환시켜 쓰는 이유와 비교하여 논술하는 것이었다. 이 논제의 경우 많은 답안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은 설명하였지만, 제시문이 고전압의 전기를 저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서로를 연결시키지 못하였거나 연관시켰다 하더라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논제 I-1>의 경우와 같이 수험생들이 논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주어진 자료들을 연관시켜 공통점을 찾아내고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계열 통합형 논술은 대개 기존 논술에 비해 보다 다양한 시각과 학문 영역을 통합한 논제가 제시된다. 또 이러한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태의 글쓰기가 아니라 내용을 중시하는 일종의 문제해결적 글쓰기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

은 논술에서는 핵심을 포착한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수사나 반복적인 표현, 불명확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답안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논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주어진 자료들의 상호 관련성이나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소재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찰해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연계열 통합형 논술은 대학 진학 후 전공학습에 필요한 사전학습을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연계열 과학 및 수학의 학습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수리적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들은 최종적인 답뿐만 아니라 그 답을 얻기 위한 풀이과정이 논리적으로 올바른지도 평가하기 때문에 풀이과정의 제시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실수가 있어 최종적인 답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중간 풀이과정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상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풀이과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서에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자연계열 통합형 논술의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문장의 주어, 동사를 분명히 하고, 현학적인 어휘의 사용을 자제하며,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는 등 논술 작성시의 기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